

## ‘문화광주’의 엉터리 문화행정 ... 문예회관 내년 ‘올스톱’

소통 부족에 완공시기 착오 ... 대극장 리모델링 1년이나 연기  
시립예술단·공연단체·기획사 등 공연장 없어 낭패 ... 문화계 혼란

광주 대표 공연장인 광주문화예술회관(광장 성현출·이하 문예회관)이 내년 한 해 동안 ‘올스톱 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문화계가 혼란에 빠졌다.

올 연말 마무리하려던 대극장 리모델링 공사가 계획보다 1년이나 늦춰진데다, 내년에는 소극장 공사까지 진행돼 극장 전체가 가동을 멈추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 19로 지난해와 올해 개점휴업 상태였던 공연 기획사 등은 내년을 기약하며 작품을 준비중이었지만, 공연장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난감해하고 있다.

무엇보다 300억 여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리모델링을 추진한 문예회관이 공사 일정 등에 대한 정확한 계획수립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

고, 공사를 맡게 된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와도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리모델링 일정을 발표해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문예회관은 지난 3월 보도자료를 내고 올 12월까지 대극장 내부시설을 개·보수하고 무대장비 교체 및 설치를 완료한다고 발표했다. 또 2022년에는 소극장 공사에 들어가 모든 공사는 2022년 12월 완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이하 종건)에 따르면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 하반기 완료되며, 점검·시연 등을 거쳐 개관사항을 보완하면 오는 2023년께나 정식으로 공연을 올릴 수 있다. 문예회관이 발표한 일정과는 전혀 다른 계획

이다.

이는 리모델링 초기 단계에서 문예회관과 종건 사이에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사 내용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문예회관 관계자는 “대극장 공사에 2년이나 소요될 줄 몰랐다. 완공 시기를 잘못 알았다”며 “현재 종건 측에 최대한 공사를 빨리 완료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예회관은 현재 8개 시립예술단체의 공연을 소극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을 대관해 진행하고 있다. 2022년 소극장까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서는 외부 공연장 대관을 비롯해 대극장 앞 잔디마당에 가설극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경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음향장비나 악기 반입 등이 쉽지 않아 예술단의 반발이 큰 상황이라서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2년간 공연장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 공연계에서

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KCTV는 내년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킹키부츠’, ‘노트르담 드 파리’ 등을 비롯해 클래식 스타들의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었지만 전부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KCTV 신상옥 이사는 “올 해 안에 대극장 리모델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내년까지 극장을 사용하지 못하면 대체극장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2년간 광주 시민들은 문화향유권을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공연마루 역시 ‘엑스칼리버’, ‘사카고’, ‘레베카’ 등 대형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손을 놓은 상태. 황인근 대표는 “2년간 대극장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돈으로 따지면 20~30억 정도 손해”라고 말했다.

종건은 2020년 2월 설계에 착수한 후 지난 3월 설계용역을 완수하고 본격적으로 공사에 돌입했다. 대극장 무대의 석면 철거를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관람석과 주차장 석면을 철거 중이다. 이후 전기, 소방 등 건축공사를 진행하며 음향장비·장치 등 철거·교체, 무대와 객석 시설 단장 등은 내년 초에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소극장 관람객 의자와 바닥가펫을 교체하고, 천장 와이어메쉬 철거, 조명 설치 등이 진행된다.

종건 관계자는 “오히려 처음 설계 시 문예회관 측에서 수정사항 80 여건을 추가로 요청해 발주가 늦어진 점은 있다”며 “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회관 요청에 따라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려고 노력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예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국비 20억원, 시비 277억원 등 모두 297억원을 들여 19년부터 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1722석 규모의 대극장과 504석 규모의 소극장의 무대장비(기계·조명·음향시설)를 교체하고 냉동기·공조기·주차장 등을 보수하는 공사다.

/전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광주시, 광복절 집회 참가 금지 행정명령 전남도, 타지역 방문 후 진단검사 받아야

코로나19 대확산 ‘초비상’

광주시가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광복절 집회 참가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광복절 연휴기간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휴가지를 방문한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웅섭 광주시장은 12일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에 이어 8·15 광복절 대규모 집회가 예상된다”며 “서울시에서 파악한 단체만 해도 현재까지 38개, 집회는 190건에 이른다”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8·15 집회는 코로나 대유행의 단초가 됐고 광주에서도 사랑제일교회와 서울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가 118명 발생했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다수 시민에게 해를 끼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불법 집회에 참여한 확진자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확진자 개인 치료비는 물론 방역 부주의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부담 등 피해 전반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정부나 광주시가 지원하는 긴급재난 지원금 등 코로나19 관련 각종 혜택도 배제한다.

이 시장은 “아울러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광복절 연휴 기간 이동을 최대한 자제

하고 해수욕장, 게스트 하우스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휴가지를 방문한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도 이날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 시 가족과 지인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력 권고했다. 국내 하루 확진자 2000명대를 넘는 코로나19 위기에도 휴가철 이동량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휴가철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은 지난해보다 6.1% 늘었고 전남지역도 10% 증가했다.

관광객 이동 인구가 많은 전남의 경우 휴가철 이동량이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지역 하루 평균 확진자도 6월 6.1명에서 7월 12.6명, 8월 18.5명으로 두 달 사이 3배로 증가했다. 최근 2주간 감염경로 별로는 타지역 접촉 57명(25%)으로 타지역 방문에 의한 감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현재 광주에서는 7명이 신규 확진됐다. 부산 주점 관련 1명, 대구 확진자 관련 1명, 광주 기존 확진자 관련 3명,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유증상자 2명이다. 특히 광주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도 확진자 1명이 발생해 방역 당국이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남에서는 이날 광양 4명, 나주 3명, 순천·영암 각 1명 등 9명이 신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2247명이 됐다.

/박진표·김형호 기자 lucky@kwangju.co.kr



“무등산 푸랭이 나왔어요” 광주의 명물 무등산 수박이 출하를 앞두고 있다. 12일 광주시 북구 금곡동 노지에서 농민들이 무등산 수박을 수확하고 있다. 무등산 수박은 15일부터 금곡동 무등산수박 공동판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 소나기·남해안 최대 60mm 비 온다

무더위는 한풀 꺾일 듯

주말인 14일까지 광주·전남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예상된다. 전남 남해안지역은 기압골 영향에 따라 비가 이어지고, 전남 내륙 및 광주는 대기 불안정에 따른 폭우성 소나기가 예상된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13일까지 최대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무더위는 일시적으로 꺾일 전망이다

나, 해상에서는 다량의 민물 유입으로 적조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광주기상청은 12일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으로 전남 남해안지역은 오는 14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13일까지 전남 남해안 지역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60mm. 14일까지 비가 이어지므로 누적 강우량은 100mm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광주와 전남 내륙지역은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전동·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13일 오후 광주와 전남 내륙지역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5~30mm. 특히 곳에 따라 시간당 30mm를 웃도는 강한 비가 퍼붓을 가능성도 있어 계곡이나 하천 주변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13일 광주·전남 아침 최저기온은 22~25도, 낮 최고기온은 28~32도가 예상된다.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4도, 낮 최고기온은 25~28도로 전망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양금덕 할머니 “나의 광복은 오지 않았다” ▶6면  
복스-‘땅의 역사’ ‘생각을 바꾸는 ...’ ▶14·15면  
유럽 축구 개막 ... “밤 설 준비 됐나요?” ▶18면  
광복절 대체휴일 - 16일자 신문 읽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배우 손담비가 선택한  
식후 3정으로 지키는 대사 건강  
메타그린 골드

“식사 후엔 메타그린 골드를 꼭 챙겨요”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골드 원포인트

- 고지방·고탄수화물 음식 섭취로부터 체지방과 콜레스테롤 개선
- 항산화와 뼈 건강까지 관리해 부족하기 쉬운 대사 영양 케어
- 오셀룰로스의 유기능 녹차가 함유된 프리미엄 녹차 정제

제품 상담 | 080-023-5454  
구매 문의 |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